

시혼

- 001 장순금 얼마나 많은 물이 순정한 시간을 살까
- 002 도복희 바뀌는 달의 외곽으로 굴렀다 - 2020년 문학나눔 선정 도서
- 003 최동문 밤의 태양
- 004 양수덕 엄마
- 005 박형권 중랑약부(中浪藥房)
- 006 김은우 귀는 눈을 감았다 - 2020년 문학나눔 선정 도서
- 007 김육진 수상한 시국 -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선정 도서
- 008 임영석 나, 이제부터 뼈뚫하게 살기로 했다
- 009 박재홍 노동의 꽃 - 2020년 출판권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도서
- 010 고경숙 허풍쟁이의 하품
- 011 강성은 白에서 百까지의 고백 - 제1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12 이용언 국경시대 - 제1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13 김정학 허공을 나는 새의 발바닥에서
- 014 문정영 두 번째 농담
- 015 박동민 극지에서 살다 적도에서 만나 - 2021년 출판권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도서
- 016 최지원 얼음에서 새에게로 - 2021년 중소출판권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도서
- 017 김소희 비켜가 있는 오후
- 018 김혜전 첫 문장을 비문으로 적는다 - 제2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19 허 민 누군가를 위한 문장 - 제2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20 송용구 녹색 세입자 - 제2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21 배홍배 라르케토를 위하여
- 022 곽진구 시의 소굴
- 023 송별강 뿔쟁주의자
- 024 손준호 당신의 눈물도 강수량이 되겠습니까 - 2022년 대구문화재단 문학작품심발전지원 선정도서
- 025 박재홍 금강에 백석의 흰 당나귀가 지나갔다
- 026 김진열 바람의 손톱엔 붉은 매니큐어
- 027 이택주 나의 오늘
- 028 고경숙 고양이와 집사와 봄
- 029 김나비 나비질 - 제3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30 김경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가 왔다 - 제3회 시산백 창작지원금 수혜
- 031 배진성 이어도공화국 5] 우리들의 고향

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. 나는 아름다운 산을 하나 가꾸고 싶다. 그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며, 나무처럼 살고 싶다. 그 숲속에 조촐한 집을 하나 짓고 싶다.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. 그 쉼터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. 절망이 너무 깊어서,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, 아주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. 아무런 부담 없이, 누구라도, 언제든지, 찾아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.

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,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. 그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,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. 세상에 대하여, 너무나 분노한 사람들과 한 때의 실수 때문에,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, 나는 그들과 함께, 그들의 나무를 심어주고 싶다. 산에 나무를 함께 심으면서, 그들의 아픈 가슴에도, 또 다른 희망의 나무를 심고,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고 싶다.

—「배진성 시인의 세상 읽기 &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」중에서



이어도공화국 5]

우리들의 고향

배진성 시집

시산백

이어도공화국 5]

우리들의 고향

배진성 시집



배진성(裵鎭星)

1966년 출생
1988년 《문학사상》 신인발굴 당선
1989년 《동아일보》 신춘문예 당선

『이어도공화국 序 - 백 년 동안의 꿈과 사랑』
『이어도공화국 01 - 땅의 뿌리 그 깊은 속에서』
『이어도공화국 02 -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지상에서』
『이어도공화국 03 - 길 끝에 서 있는 길』
『이어도공화국 04 - 꿈섬』

yeardo@naver.com